

# ‘삼성 우량주장기 증권 펀드[주식]’ 비교지수 변경 안내문



존경하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삼성자산운용과 삼성 우량주장기 증권 펀드[주식] (이하 ‘우량주장기 펀드’)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04년 12월 1일 펀드를 설정한 이후 고객님의 자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키워 나가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펀드를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 [ 투자 판단의 기준 및 비교지수 변경 추진 사유 ]

‘우량주장기 펀드’는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의 대형주로 투자 범위를 한정하여, 안정적인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펀드는 철저한 기업 분석에 근거하여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의 기업 중에서 40개 이내의 핵심 종목을 선택하여 투자를 집중하는 전략을 취해 왔습니다.

설정 이래 저희 펀드는 여타 일반 주식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비교지수로 KOSPI 지수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 기업에만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저희 펀드 본연의 목적상 ‘KOSPI’ 지수 보다 ‘KOSPI100’지수가 비교 지수로서 더욱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투자 목적에 맞는 비교지수 선정을 통해 고객 분들께 보다 정확한 평가를 받고자 이렇게 비교지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 변경하는 비교지수에 대한 소개 ]

향후 ‘우량주장기 펀드’의 비교지수로 사용할 KOSPI100 지수는 KOSPI200 중에서 산업 구분없이 시가총액이 큰 상위 100종목으로 구성되는 지수입니다. KOSPI200과 마찬가지로 매년 1회 KOSPI200 선물시장의 6월 결제 월의 최종거래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정기변경을 실시하며, 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 등 특별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종목으로 교체합니다. 또한 정기변경에서는 주가지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종목교체를 줄이고자 신규 진입과 퇴출에 있어 KOSPI 200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신규로 구성종목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순위가 구성종목수의 80% 이내로 진입하여야 하며, 기존 구성종목이 퇴출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순위가 구성종목수의 120% 밖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기타 지수산출 및 관리방법은 KOSPI 200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변경 내용 정리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예정일
비교지수	KOSPI x 95% + CD 3개월 x 5%	<b>KOSPI100 x 95% + CD 3개월 x 5%</b>	2013. 6. 3

[ 글을 맺으면서 ]

지난 수 년 간의 누적된 성과 부진으로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펀드는 올해 1월 담당 운용역 변경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식시장이 아닌 세상의 변화와 기업에 투자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운용역 한 사람이 아닌 삼성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전체의 팀 워크에 기반한 펀드 운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기업 분석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운용 전략을 일관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성과를 돌아보면 마음이 급하지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느리더라도 차분하게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껏 믿음을 주신 고객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본 자료는 투자참고 자료로서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펀드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하는 해외투자상품에의 투자는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 환율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